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 수주 선가 중국의 3.5배

한국이 LNG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중심의 수주로 11월 척당 평균 1.2억달러를 기록함. 중국대비 3.5배 높은 수준임. 11월 CGT기준 국가별 누계 수주실적은 중국 49%, 한국 38%, 일본 9%임. (선박뉴스)

LCO2선 관심 고조

LCO2(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초기의 선박 규모는 7,000CBM급이었으나 최근 20,000 또는 40,000CBM급 선박에 관심이 많아짐.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은 동형 LPG선과 비슷할 것으로 언급함. (선박뉴스)

Capesize bulker market moves higher as 'mini-squeeze' propels spot rates

최근 Capesize 벌크선 운임상승은 기상악화와 항만적체의 영향으로 보도됨. 대서양 항로 물동량도 충분함. Capesize 5TC는 수요일(8일) 12월 1일대비 +16.3% 상승함. 2022년에도 2021년 수준의 운임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지만, 1분기는 고운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Analysts warn of 40% drop in container ship rates next year as demand slumps

S&P Platts Global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부터 나타날 수요 감소로 운임이 최대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선사들의 공동운항으로 하락세가 급하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도됨. 중국의 2월 춘절과 동계올림픽에 주목해야함. (Tradewinds)

Trafigura to convert six ammonia carriers to zero-emission fuels

스위스 용선주 Trafigura는 2030년까지 6척의 암모니아운반선을 탄소제로 연료 사용 선박으로 전환할 것으로 발표함. 보유 선대 중 18%에 해당하는 물량임. 블루,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불도저 첫 출시... 북미시장 겨냥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10톤급 불도저를 북미시장 신제품으로 출시함. 미국 애리조나 딜러미팅에서 100대 이상의 사전계약 달성, 3분기 중 인도할 것으로 보도됨. (뉴시스)